

나노기술 전시회 8월 27-29일 KINTEX 개최

국내 최대의 나노기술 축제인 <Nano Korea 2008>이 <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나노기술>이라는 주제로 8월 27-29일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다.

행사는 국내외 석학이 나노기술 동향을 강연하는 심포지엄과 기술의 산업화 성공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전 시회로 구성된다.

전시회에는 탄소나노튜브가 사용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, 나노잉크가 사용된 나노잉크젯프린터, 나노의류 등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나노기술이 일상생활과 접목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.

또 삼성전자, LG화학, LG실트론, 한화석유화학 등 종합 전자·화학분야 대기업을 비롯해 잉크테크, 케이피 엠테크 등 첨단나노소재기업과 SEMES, 엠아이텍, 엠파워 등 나노공정·측정분석 전문기업들이 미래를 선도할 개발 기술 및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.

심포지엄에서는 KIST의 금동화 원장과 일본 NIMS(물질과학연구소)의 키시 테루오 원장이 기조 강연을 통 해 나노기술의 미래와 산업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등 총 4개국 54명의 연사가, 마이크로컨퍼런스에는 3개 국 8명의 연사가 초청 발표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8/08/27>